

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재조명

* 이 자료는 Steven K. Vogel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“일본형 제도의 강점을 살려, 노동자의 유연성 향상이 급선무”(2018.8.10.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하고 시사점을 덧붙인 것임

- 규제의 삭감보다는 적절한 시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
-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이해관련자 중시가 강점
- 일본은 미국형 주주중시모델을 모방하지 말아야
-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, 디지털시대에 더욱 중요

□ 개혁, 규제완화만으로는 불충분

- 아베정권의 경제정책, 아베노믹스에 관한 통설은 특히 외국의 보도에서는 최초의 2개의 화살, 즉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정치적인 제약에 의해 진전되고 있지 않음
 -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행할 수 있다면 일본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
- 이러한 통설에는 오류가 있음. 일본정부는 일련의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,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에 비하면 훨씬 나음
 - 그러나 규제완화 등의 구조개혁이 생산성과 성장에 관하여 기대한 대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
 - 호시다케오(星岳雄) ·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와 아닐카샤프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의 공동연구에 의하면, 1995-2005년에 실시된 규제완화와 전요소 생산성(TFP)개선 간에 상관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, 이는 현재도 적용될 수 있음
- 시장이라 함은 회사법을 필두로 금융규제, 경쟁정책, 지적재산권 보호 등 본질적으로 거버넌스(지배)를 필요로 함
 - 그렇다면 시장의 강화개선이라 함은 규제의 삭감이나 자유화하는 의미에서의 규제완화가 아니고 시장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임

- 정부가 경쟁의 활성화, 이노베이션의 창출, 평등의 추진을 바란다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
- 즉 정부의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정부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자국의 정치·경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한 후에, 목표실현에 필요한 능력이 갖추어 지도록 개혁을 설계해야함
- 구체적으로는 구조개혁의 양 기둥인 노동시장과 기업통치를 예로 설명할 수 있음

□ 이제까지 노동시장 개혁 방향

- 일본은 1990년대부터 기업의 자유재량을 늘리는 친고용자 개혁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친피고용자 개혁의 양면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왔음
- 그러나 이번 노동방식 개혁에서 중점은 전자에서 후자로 이동하고 있음
- 정부는 노동비용 억제를 통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제로섬개혁에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동참가율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플러스섬개혁으로 방향을 튼
- 이 노동방식 개혁은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 색채가 짙었던 초기의 개혁은 결국은 격차를 확대하여 경제안정을 해치고 말았음
- 그 결과 수요의 침체와 거시경제의 약체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

□ 이제까지 기업통치개혁 방향

- 한편 기업통치개혁은 단순히 규제의 폐지나 시장의 개방이 아니고 법률과 기업관행의 재검토와 관련된 것임
- 일본의 정부와 산업계는 대규모 기업통치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러나 미국형 주주중시의 경영모델이 당시의 미국에서 실패로 끝났는데도, 이 모델을 도입하려고 한 경우가 많음
- 최근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특징짓는 요소(스톡옵션=주식구입권, 자사주 매입, 적대적 매수, 사외이사 등)이 반드시 미국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음
- 더욱이 미국형 주주중시 모델은 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음

- 일본은 이러한 미국형모델을 모방해서는 안 되지만 기업통치개혁은 필요하므로 일본기업은 투명성 확대, 설명책임 강화, 경영진의 다양성 추진 등의 개혁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음
- 대별하여 기업통치개혁은 2가지 방향성이 있음
 - 하나는 경영프로세스 개선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, 다른 하나는 노동자를 희생하고 자본이익율을 높여 눈앞의 초과이익추구로 치닫는 것임
 - 이제까지 기업통치개혁은 후자에 편중되어왔는데 과거 10년간 경향은 분명히 자본주의적 착취의 전형적인 예와 일치, 이익이 확대된 한편, 노동분배율은 저하, 투자는 정체되었음

□ 일본형 자본주의의 장단점

- 이로부터 일본형 자본주의 장단점이 드러남
 - 유능한 관료조직, 강력한 관민유착, 업계의 원활한 조정메커니즘(업계단체 등), 협조적인 노사관계, 스테이크홀더(고객, 거래처, 종업원 등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들)중시의 경영, 잘 훈련된 규율있는 노동자 등은 장점임
 - 일본은 미국형 자본주의를 지향하여 개혁해왔으나 문제는 약간 지나쳤던 점이나 그 과정에서 모처럼의 장점을 훼손해버린 점임
 - 전통적인 모델을 지키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가 하면, 그러지 않음
 -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형 모델에는 직장에서 노골적인 성차별, 일부 업계에서의 담합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
- 나아가 세계경제는 일본의 장점을 해치는 단점을 심각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
 - 가치창조의 주력은 제조부문으로부터 서비스부분으로 이행, 제조 자체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와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음
 - 또 제조과정은 인테그럴(통합)방식에서 모듈(조합) 방식으로 국내 공급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으로, 내제화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변화하고 있음
- 일본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함. 디지털시대에 세계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글로벌하고 개방적으로 되는데 더하여 물리적인 인프라에도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음

□ 향후 일본형 시스템의 개혁방향

- 그러나 그 때,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. 본래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.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로서, 다시 노동시장과 기업통치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봄
- 노동력 부족은 고용의 안정이나 협조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는 장점을 유지하고 성차별이나 노동자에게 유연성의 결여라고 하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주된 약점에 대응하는데 좋은 기회가 됨
 - 정부는 기업의 유연성이 아닌 노동자의 유연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개혁을 지원할 수 있음
 - 노동력의 유연성은, 예를 들면 텔레워크 등 노동방식의 유연성, 휴직에의 대응 등 커리어 형성의 유연성,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간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드는 대우의 유연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음
 - 이러한 개혁에 의해 노동력참가율이나 생산성이 향상되면 최종적으로 기업,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에 플러스가 될 것임
- 기업통치개혁에서는 기업과 경영진의 단기초과이익추구(rent seeking)을 확대하지 않고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
 - 일본은 미국형 주주중시모델을 모방하지 않고 보다 개방적으로 보다 설명책임이 명확한 독자적인 스테이크홀더 중시 모델을 지향해야함
 - 구체적으로는 (1)노동자 등의 스테이크홀더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두고, (2)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스테이크홀더의 광범위한 관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이사의 교육연수를 실시, (3)주주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에 노력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음

□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, 디지털시대에 더욱 중요

-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, 일본은 디지털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강한 지도력과 관민협력을 필요로 함
 - 이러한 대응에는 주요 기술의 개발, 정부·기업·학교에의 IT시스템 보급,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·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숙련을 갖춘 인재교육에 대한 대규모투자도 필요함

-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은 디지털시대에서도 진부화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도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

□ 시사점

- 일본형 시스템에 관해서는, 1980년대까지 찬탄의 대상이 되어오다가 1990대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형 시스템의 피로니, 기능부전이니 하는 말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장점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사실임
-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일본경제 발전의 배후에 일본형 시스템이 기능해왔고, 대내적으로는 일본형 시스템의 경제적 합리성 내지는 경제적 효율성에 관하여 많은 일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왔음
- 오늘날 일본형 시스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으나, 그 뿌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뿌리를 두고 있음
 -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개량된 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경제시스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
- 일본형 시스템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경적 조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
- 따라서 오늘날 일본형 시스템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시스템을 받쳐주었던 환경적 조건이 소멸했거나 변질된 측면도 있음
- 또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일본형 시스템의 경제적 합리성 내지는 경제적 효율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
- 앞에서 디지털시대에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이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, 산업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일본형 시스템 고유의 장점(순기능)을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함. 